

# 우리의 의식을 담는 틀, 언어: 언어의 구조, 그리고 그 풍경

김하수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

## 1. 현대 사회와 현대 언어

언어는 역사 속에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사회적 함의를 품어 안으며 그 변화와 변천 속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그 역사에다가 시대에 따라 특정한 속성을 매겨 둔다.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있듯이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현대’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들이 일시에 현대 사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시차가 생겼다. 먼저 도달한 사람들이 먼저 열매를 따고, 뒤늦게 도달한 사람들과 발전 수준과 축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 차이는 경제 수준, 군사력, 지식 축적 등 온갖 면에서 격차를 만들어 내어 시장과 전장에서, 혹은 정치와 문화의 장에서 끊임없는 우열 관계를 재생산해 왔다. 그리고 언어도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현대 언어’는 현대의 산물인 동시에 현대 사회의 동력이다. 비록 그 태생은 전근대, 즉 중세 언어의 후예이지만 새로운 시대 상황에 최적화되며 새 시대의 ‘앱’으로 변신에 성공한 사회적이고도 지적인 자산이다. 언어 역시 모든 사회 공동체처럼 동시에 현대라는 시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언어마다, 또 그 언어를 품고 있는 사회마다 제각각 서로 다른 계기와 시점에 현대의 문턱에 다다랐다.

현대는 전근대와 달리 신분 제도와 각종 세습을 극복해 냈다. 이는 곧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했다. 직업과 노동의 귀천도 무시했다. 그래서 천대받던 고리대금업도 금융업이 되었고, 배움을 갖추었으면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았다.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급 차이라든지 신분을 나타내는 말보다는 서로를 평등하게 일컫는 방식이 발달했고, 언어의 외피로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장 구조의 의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했다. ‘주의 은혜로……’라든지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식의 종교적 표현도 수그러들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정치적인 분화와 발전이 눈부셨다. 대의정치, 정당정치, 선거제도, 결사, 저널리즘, 더 나아가 인터넷 카페 같은 것들이 이른바 ‘공론장’을 형성했다. 이 공론장의 주인 격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일컬었으며,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대항 담론을 만들어 내는 세력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규범을 사회적으로 관철시켰다. 쉽게 그런 축에 끼지 못하는 영세한 시민들을 아울러 ‘소시민’이라고 불러주면서 동일한 행동 규범에 포섭하여 넓은 의미의 ‘한편’이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폭넓은 지배 세력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민의 언어’에 자부심이 많았다. 시민의 언어는 왕족과 귀족의 언어, 시골의 사투리, 주변의 소소한 소수민족의 이방 언어 등과는 달랐다. 도시에서 무르익은 그들의 언어는 생경한 지역성이 묻어나는 지방 사투리가 아니었다. 거칠지 않은 억양에, 풍부한 어휘, 귀족들과 지식인들의 영향을 담백 받은 완곡어법들, 풍성한 지적인 기반을 보여 주는 넉넉한 인용구 등으로 해당 언어의 가장 바람직한 ‘현대적 전범’을 만들어 냈다. 또 이 시기는 천재적인 인문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크게 빛내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현대의 가치를 선점한 집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를 주무르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사회를 촘촘히 꿰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세계'를 이룩해 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새로운 가치, 표준, 모델, 패러다임 등등은 거기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사회를 끊임없이 허덕이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표준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가진 형태와 의미가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 준다.

현대라는 시대의 초기에는 언어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현대를 성취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는 심한 차별을 받았고, 당시의 지배적 관념이었던 진화론에 의거하여 도태되어 마땅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이 관념은 20세기에 들어와 식민주의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폐기된다. 그러나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독점 언어, 혹은 몇몇의 과점 언어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 물론 오히려 자잘한 소수 언어들도 연명의 길을 잘 찾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의 언어가 되려면 각 개인의 정서나 기분, 신분이나 신앙 등이 나타나지 않는 객체로서의 메시지가 중립적인 언어 구조에 잘 담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문법'의 세계이다. 메시지의 형식을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대는 '문법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또 현대 사회는 보편 교육을 (거의) 완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덕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의 질곡에서 탈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 언어는 입말투와 글말투, 두 가지의 말투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 시기에는 낮은 계층은 그저 입말투로만 말을 했고, 지배 계층은 입말투와 글말투 둘 다 사용했다.

또 현대 사회는 구성원의 '사생활'을 익명화하여 그들을 무척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언어 역시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사사

로운 상황에서 쓰이는 형식으로 분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언어의 현대화와 제도화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 다양한 조직체들의 내부의 정보와 의사를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소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이 일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동 방식이 일치한다 함은 모두가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행(언어 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화용론적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언어가 반영된 교육은 역시 ‘상징적으로’ 계급 사회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사회 계급 간의 불화를 막는 기능과 동시에 은폐하는 기능도 한다.

## 2. 현대와 현대 한국어

한국어를 시대에 따라 규정하는 말은 보통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처럼 개념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당연히 ‘현대 한국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대 한국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저 사전적으로는 ‘현대에 사용하는 한국의 언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어휘 설명’일 뿐이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개념이 되려면 적어도 ‘현대’의 개념과 ‘한국어’의 개념에 대해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역사학에서의 시대 구분 논쟁은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다. 사실 시대의 문제는 역사학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어학에서는 시대 구분은 다양하게 해 왔지만 그에 대한 ‘논쟁’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앞에 언급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어를 가리키는 용어가 편안하게 사용된다. 개념의 불투명함을 기초로 삼

고 ‘오늘의 한국어’에 대해 서술을 해야 하는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역사학에서의 시대 구분과 일치 내지는 어긋비슷 발을 맞추는 구색은 갖추어야 그 타당성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계급과 지역, 그리고 인습의 제약을 넘어서서 매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며 그들 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주로 ‘언어’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에다가 일종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을 민족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어라고도 혹은 문헌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언어에 따라 일찍 근대 이전부터 규범화가 착실히 이루어진 언어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현대 사회’를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현대 한국어’도 ‘현대의 여명기’ 어느 시점에서 ‘현대어다움’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논쟁의 부재는 이 시점의 타당성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계기로 무엇을 꼽아야 할지 여러모로 망설이게 한다. 충분한 논쟁을 거치지 못한 한계 속에서 거론해 볼 수 있는 현대 한국어의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계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해 볼 수 있다.

- 1) 독립신문 발행(1896년 창간, 1899년 폐간)
- 2) 지석영의 신정국문 6개조
- 3) 국어 의정안(1909년)
- 4) 갑오개혁(1894년) 및 이에 따른 을미개혁(1895년)
- 5) 주시경의 상동 청년학원 한글강습소(1908년-1910년)
- 6) 조선어학회의 시작(1908년의 국어연구학회가 모체, 1921년 창립)
- 7) 한글마춤법통일안(1933년)

- 8) 표준어 사정(1936년)
- 9) 광복 및 정부 수립(1948년)
- 10) 큰사전 발간(1957년)

1)의 독립신문 발행은 그 자체가 언어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 사회의 현대화를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첫 번째 계기였으며 동시에 현실 사회에서 언어적인 현대성을 실험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와 3)은 지식인들이 언어 문제 혹은 언어의 현대화(혹은 제도화)를 위해 국가 기관의 발의로 공동 연구를 했던 중요한 경험들이다. 적어도 언어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의 기능을 했다. 4)는 근대적인 법치 환경을 만들어 언어의 현대성을 입히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해당하고, 5)의 한글강습소는 청년층과 기층에 새로운 언어 의식을 불리 일으키는 첫 사업이 아니었나 한다. 6)의 조선어학회 출범은 현대화를 위한 추진체를 구성했음을 보여 준다. 이 추진체는 한편으로는 지식인, 동호인들을 결합시켜 공동의 활동을 꾀하는 엔진의 역할과 사회적 의사 형성 과정을 주도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그 뒤의 7), 8), 10)의 계기들이 나타난다. 간단히 종합하면 정치 기구의 역할은 3), 4), 9), 의식화된 엘리트에 의해서 생겨난 계기는 1), 2), 5), 조직화된 사회 운동 기구의 역할은 6), 7), 8), 10)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 실로 우리 한국어의 현대화는 대략 60년 동안 서서히, 종종 역풍과 반동을 겪으면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해 온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바로 ‘제도적 언어 규범’의 완성이다.

언어 규범의 완성은 어휘(의미)와 문법에 대한 연구 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연구도 필요했다. 앞에

든 열 가지의 현대 한국어의 발생 계기는 거의 60년의 시간을 품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전쟁과 분단, 교육 제도의 정착, 출판 문화와 보도 매체의 보급 등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100년에 이르는 고난의 기간이기도 했다.

이 기간에 한국어는 현대화의 길을 꾸준히 밟았고, 언어 규범은 뿌리를 내렸다. 아직 분단과 관련한 문제는 생생히 남아있으나 그 문제는 이 글의 흐름에서 일단 배제하고자 한다. 분단 역시 현대 한국어의 규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단은 별개의 복수 규범을 불러왔을 뿐 현대어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분단과 관련하여 어휘 면에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그동안의 냉전과 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아 일부 어휘에 비합리적인 고정관념이 생겨 퇴화되어 버린 일들이다. ‘동무, 주석, 인민’ 같은 말들은 이념 대립과 무관하게 매우 유용한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선입관을 주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체’라는 어휘 역시 사용하기에 꽤 거북해졌다. 사실 ‘주체’ 개념은 사회주의 사회보다 시민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전도되어 버린 셈이다.

### 3. 사회 변화와 언어

전쟁을 겪고 나서 그간에 겪은 한국 사회의 변화는 산업화를 통한 ‘시민 사회’의 성장이다. 애당초의 산업화 과정은 시민 사회와 무관하게 ‘관치 경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 압축 성장은 자신의 삶과 주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반면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끌어낸 현대 한국어의 변화는 그리 요란하

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졌다. 주로 입말에만 사용되고 글말에는 한자(어)가 사용되던 한국어는 전근대와 달리 글말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화계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과 낮춤을 드러내던 데에서 서로의 공식성 여부, 말투의 구분을 나타내게 되었다. 다음에 보이는 표처럼 새로운, 혹은 달라진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상층어	하층어
글말투	합쇼체	해라체
입말투	해요체	반말

한국어 종결법(마침법)은 전통적으로 대화 상대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합쇼체-하오체-하계체-해라체-반말체라는 ‘등급’을 보여 주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가장 높은 층에 ‘하소서체’도 올려 놓아 볼 수 있겠으나 역사 드라마나 기독교 기도문에서나 볼 수 있는 퇴화된 형식이므로 굳이 거론할 것은 못된다. 하계체도 많이 퇴화되어 장인과 사위 관계나 은사와 옛 제자 사이 같은 협소한 경우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약화되었다. 하오체도 사실상 소멸되고 그 자리에 반말에다가 ‘요’가 연결된 형태가 대치되어 들어갔다.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대어섯의 화계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기능’으로 재편되어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합쇼체는 상층어의 글말투, 해요체는 상층어의 입말투, 해라체는 하층어의 글말투, 반말은 하층어의 입말투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라체는 사실 하층어라기보다는 문장의 복잡한 문법 형태들, 곧 존대 및 겸양과 관계된 ‘-시-’라든지 ‘-읍-’과 같은 형태소들을 소거하여 그 내용을 부정형(不定形, infinitive)으로 만드는 중립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현

을 위하여 방송에서는 합쇼체를, 신문과 잡지에서는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화제 기능의 변화는 현대 한국어가 전근대 사회에서 현대로 빠르게 변화해 들어가며 언어를 재구성해 낸 결과물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매우 빠른 변신에 성공한 경우는 어휘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통속적인 호칭과 관계된 변화는 정말 괄목할 만하다. 남녀 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이성간의 호칭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남자 친구나 남편에 대한 ‘오빠’라는 호칭, 아내에 대한 ‘와이프’라는 지칭이다. 특히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변화는 장인과 장모를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라고 부르며 양가의 호칭을 단일화하여 공식적인 언어 사용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거기 에다 ‘언니’와 ‘이모’ 역시 친족 호칭의 한계를 벗어났고, ‘삼촌’, ‘아저씨’와 ‘아재’도 친족과 그 너머의 세계 중간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친족 호칭 외에는 남성들에게 ‘사장님’ 여성들에게 ‘사모님’과 ‘여사님’이 비공식 부문에서 매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어휘 사용으로 볼 것이요, 사회 발전과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혈연이 시민화되지 못하고 시민이 혈연화되는 듯한 변화 양상을 적지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비해 언어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좀 더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누가 누구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설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① 의사가 환자에게: 3%
- ② 고객이 점원에게: 5%
- ③ 교통순경이 운전기사에게: 8%
- ④ 의사가 간호원에게: 20%

- ⑤ 사장이 사원에게: 30%
- ⑥ 남편이 부인에게: 40%
- ⑦ 장교가 사병에게: 60%

물론 이 조사가 그리 정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는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의사와 어린 소아과 환자 사이였다면 얼마든지 반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비교적 폭넓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전반에 깔린 언어 의식을 보여 주기에 그런 대로 큰 모자람은 없는 것 같다.

그로부터 35년 이후에 나온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얻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에서는 앞에 든 81년의 조사와는 달리 또 다른 대칭점에서의 언어 의식 조사였다. 표본 집단의 성격도 많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위험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묻는 데에 제시된 답변 가운데 1981년 조사와 대조해 볼 만한 경우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내가 남편에게: 72.8%(2005년), 62.4%(2010년), 53.0%(2015년)
- ② 남편이 아내에게: 63.2%(2005년), 54.5%(2010년), 44.9%(2015년)
- ③ 고객이 점원에게: 94.9%(2005년), 86.3%(2010년), 86.7%(2015년)
- ④ 의사가 간호사에게: 92.5%(2005년), 78.7%(2010년), 73.9%(2015년)
- ⑤ 장교가 병사에게: 52.3%(2005년), 61.5%(2010년), 37.3%(2015년)

두 자료의 상반된 접근 방향을 염두에 두고 수치를 해석한다면 그리 혁신적인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1980년대에 남편이 부인에게 반말해도 좋다는 의견이 40%였는데, 2000년대 이후 결과는 남편이 아내에게 높임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63.2%(2005년), 54.5%(2010년), 44.9%(2015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35년 전과 요즘을 견주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대략 반말과 높임말의 비율은 4:6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1981년의 의견은 약 20%였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높임말 사용을 당연히 여기는 비율이 92.5%(2005년), 78.7%(2010년), 73.9%(2015년)으로 역시 1980년대 초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장교가 병사에게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은 1981년도의 조사에서는 60%가 수긍을 했고, 2000년대에는 높임말 사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52.3%(2005년), 61.5%(2010년), 37.3%(2015년) 정도를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임법 요구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그리 혁신적인 수준의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어진 자료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1980년대의 자료는 ‘한국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의 변화된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응답자들이 혁신적인 답안에 자신을 가질 만도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국어원 조사에는 이 질문들을 던지기에 앞서 한국어의 높임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선행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고 그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일 선행하는 질문이 ‘한국어의 높임말이 되도록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대 사회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앞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높임말의 사용은 현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가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 4.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와 언어

민족국가의 성립에는 그 구성원을 결정짓는 절차가 필요하다. 순탄하게 현대화의 길을 걷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이 구성원 결정이 역시 순탄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적잖은 폭력이 수반되곤 한다. 미국도 영국에서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처형당하거나 캐나다로 도피해야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가 독립될 때에는 정교회 교인은 ‘강제로’ 그리스 땅으로, 이슬람 교인들은 역시 터키 땅으로 이주해야 했다. 한국도 분단 그리고 뒤이은 월남과 월북의 물결, 그리고 전쟁과 피난으로 두 지역에 따로따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미 분단 이전에도 한국의 민족국가 구성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정주하며 민족적 구심력에서 빠져나갔다. 그들은 지금까지 ‘재외동포’ 혹은 ‘교포’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주변부를 메워 주기도 하고 외곽을 넓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한국어 사용자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사회적 관철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한국어 사용자 집단은 근대화의 맹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 이주자를 내보내 왔다. 19세기 중후반에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사적인 이주가 행해졌으며, 주로 빈농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들 농촌 출신들은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주를 했고, 따라서 토착 한국어와 풍속을 잘 유지한 편이다. 그러나 현지의 열악한 교육 문화 환경으로 말미암아 훗날 현지의 공교육 체계 및 외국계 이주민 처리 과정에 용해되어 버렸다. 곧 사사로운 관계라든지 소집단적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비록 파편화된 상태로나마 토착 한국어가 사용되었지만 공적인 활동을 담당해 주지는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현지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교체’를 하게 되었다. 특히 연해주 이주민들은 중앙아시아

로 강제 이송되면서 본향과 문화적 결속력이 단절되는 격변을 겪었다.

중국의 동북지방의 한국어는 북한과의 지리적, 사회적 연계 덕분에, 그리고 불충분하나마 어느 정도는 보장된 자치 제도 덕에 한국어의 사회적 정당성은 보존되고 있으나 연해주 쪽의 이른바 고려 말은 사실상 ‘절멸’ 단계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종종 개인적인 의지로 의식화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대부분 남한의 규범화된 한국어, 곧 한국어의 남한식 변이를 받아들이고 현지의 고려 말을 점점 약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국어 사용자 집단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농민들의 이주였던 중국과 러시아 쪽과는 달리 주로 도시 노동자로 편입된 관계로 일부 제주도 출신들을 제외하고는 본향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충분히 계승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일본 공교육이 소수민족의 언어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후세들이 일본어 사용자로 ‘언어 교체’를 강제당했다. 일본의 오래 정착한 한국인들 가운데 초기 이주자들과 극히 일부 차세대만이 ‘의식화된 한국어 사용자’로 남았고, 또 일부는 뒤늦게 배운, 달리 말해서 모어로 배우지 못하고 외국어로 배운 한국어 사용자들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이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 배타적이던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대부분이 공교육을 잘 받은 중산층이었으며, 이미 규범화된 한국어를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습한 상태였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중산층으로, 혹은 소시민 계층으로 편입되었고, 다양한 집거 지역을 형성했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현지 적응에만 몰두했으나 나중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깨닫고 비교적 두 언어 능력을 갖추려고 많이 하였다.

북미 이주는 그 이전의 이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이전의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이주는 모국 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 여건도 매우 나빴다. 그러나 북미 지역은 여러 사회적, 정치적 이점을 가지고 한국 사회와 끊임없이 동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 학교 교육, 소비 생활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아 가고 같아지고 하면서 서로의 호환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이주라기보다는 이어나 전학 및 편입하는 과정과 비슷해졌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을 보면 독일에 광산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노동 이민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촌의 농업 노동력의 이주가 많았다. 독일에서 비교적 공동체적 관계를 이루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계승했으나 후속 이민이 없는 관계로 소수의 유학생들과의 연계 속에 작디작은 언어 섬이 되어 가고 있다. 또 남미에는 농업을 염두에 둔 이민이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도시 자영업으로 전환했고, 한국어 사용은 주로 ‘가정’ 내에 머무르는 편이다. 역시 이주자의 연속성이 없었던 관계로 큰 언어 사용자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또 여러 번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쪽으로 재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다.

이상에 열거한 디아스포라와 연계된 한국어의 변종들은 사실 한국어 규범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참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변종들은 한국어 체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변외’ 한국어 변종이 된 것이다. 고려된 것은 오로지 한반도 내의 내부 방언들만이 규범의 외부 요소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되었던 변외 한국어 변종들은 이미 20세기 초에도 꽤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표준화 과정(1930-1936)에서 소외되었다. 다시 말해 뒤에 태어난 규범에 의해서 부정된 언어 변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른 시기에 이주를 하여 본향에서의 마을 공동체를 지속성 있게 유지해 왔고 후세를 교육하고 홍보와 예술 활동에 사용되던 이주자 집단의 언어의 정당성은 ‘무효화’되었다.

## 5. 한국어의 변이와 사회심리적 분절 현상

한국어의 규범화는 표준어 어휘를 확정하게 하였고, 이 결과는 당연히 ‘방언’이라는 또 다른 ‘신분’의 언어를 낳게 했다. 방언은 규범 언어의 지역적 변이형들이다. 그 변이형들은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지역 방언이다. 지역적으로 색다른 언어 변이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소통 방식과 의미장들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언어들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지역 변이는 규범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동시에 이 변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들의 언어도 소외되거나 무시된다. 낙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어의 지역 방언은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략 일곱에서 여덟 정도의 지역 변이를 꼽고 있다. 그러나 방언은 오로지 언어 내적인 구조와 어휘의 형태 및 의미에서만 분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사회적 상징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곧 사회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변이를 듣는 순간 발화자의 사회 계층과 직업 종류 심지어 학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정보 혹은 선입관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다. 언어 구조의 차이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분절화가 해당 변이 사용자들을 더욱 아프고 예민하게 한다. 그리고 해당 변이형 사용자 집단을 공고하게 단결시킨다.

한국의 방언들은 주어진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후유증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변이는 낮은 학력과 빈민들의 상징처럼, 또는 폭력배들이나 그들의 단결심을 상징하는 언어 변이로, 또는 세상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의 전형인 양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인용된다. 잘되어야 관광용 방언 어휘를 소개하게 되는 정도이다.

한때 북부 지방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거칠어 보이는 방언은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상징했다. 종종 ‘삼팔따라지’나 ‘이북 것들’이라는 경멸조의 표현도 있었지만 ‘아바이’라든지 ‘또순이’라는 별명은 이들이 얼마나 근검한 삶을 사는지를 드러내 보여 주는 좋은 열쇠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녘 변이는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지 않는 지역 변이에 머무를 때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뿐, 북한 체제의 중심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말에 가까운 변이에 이르면 오히려 사상적으로 혐오의 대상처럼 비치게 되거나 탈북자의 언어 변이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현지에서는 하층어(L 언어)에 해당하는 변이가 상대적으로 호감을 얻고 상층어(H 언어)에 해당하는 변이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변이들의 사회심리적 분절에 해외 이주자들의 언어 변이가 중첩된다. 그리고 그들이 머금고 있는 함축적 의미와 가치는 지역 방언 사이의 분절 현상을 더 뛰어넘는다. 일반적으로 중국 동북 지방의 한국어 변종은 지역 방언 정도의 수준으로 분절되거나 조금 더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욱 더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낮은 층위로 분절되는 변종은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문화어 변이들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언어 변이를 함께 병렬화하면 훨씬 더 복잡한 사회심리적 분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주 지역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특이한 변종, 단문 중심의 한국어에 많은 양의 영어 단어, 특히 영어 감탄사의 심한 간섭이 눈에 띄는 북미 변이형은 비교적 낙인 효과가 덜하거나 종종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식 단어는 그 발음이 외래어 표기법을 읽는 것이 아닌 현지 발음과 억양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징표로 삼는다. 과잉 교정이라 할 수 있다. 영어나 유럽계 어휘에서 온 말들은 종종 과잉 교정이 일어나며 적잖은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어는 우리와 일종의 내연의 관계에 빠져 있

는 셈이다.

같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라 하더라도 영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차용된 것이 일본어를 거쳐 차용된 것보다 그 사용자의 사회적 계층을 높아 보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들이 영어식 발음으로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식 발음의 어휘는 낮은 계층 또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하급 기술자나 기능인들의 통속어로, 영어식 발음의 어휘는 교육받은 계층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보통 ‘후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규범 형태는 ‘프라이’이다. 글로 적을 때는 ‘프라이’로, 말할 때는 ‘후라이’를 쓴다. 이러한 관계는 외래어의 상당 부분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귀화에 성공한 어휘도 있다. 머리를 구불구불하게 굳히는 머리를 보통 ‘파마’라고 한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을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심리적 분절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다. 지난 3월 10일 헌법 재판소의 소장 권한 대행의 머리에 ‘헤어 물’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보통 동네의 여성들은 그것을 ‘구리뿔’ 혹은 ‘구루프’라고 한다. 아직 표기법도 정해진 것 같지 않다. 결국 이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인지 그 분절도 가르쳐 준 셈이다.

한국어는 내국인이나 해외 교포들의 언어만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한다. 이들의 한국어도 역시 사회심리적으로 분절화된다. 외국인으로서 인사말 정도 하는 한국어 능력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이익을 다투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은 무척 예민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북미나 유럽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친절한 대우를 받는다. 그 외의 지역 출신들은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인종 차별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

국민들은 어설피게 배운 한국어보다 자신들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할 때 훨씬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영리하게 잘 알고 지낸다.

간추려 본다면 한국어는 지역 차별, 인종주의, 사회 계층, 학력 차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태이다.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 언어, 즉 민족어 형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언어로 성장 발전하는 데 실패한 언어일 가능성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 6. 역사적 분절

좀 더 세밀하게 한국 사회의 언어 변이들이 분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무심히 지나치게 되는 언어 변이가 있다. 바로 한자어와 일본에서 온 말이 있다. 한자어는 워낙에 오랜 세월 한국어 구조 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한자어를 하나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 토착화된 한자어들이다.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의미를 직관적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어휘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자어들은 그 역사적 경로가 문제일 뿐이지 한국어의 사용과 소통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인 다양성을 보태 주는 가치 있는 어휘이다.

또 다른 한자어들은 대개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온 어휘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이미 토착화되었다. 이 부류의 단어들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만든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어생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순화의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 특히 한국의 언어 문제에 관한 담론에서 ‘일본식 용어’라는 지적은 마치 불륜의 흔적인 것처럼 지적당한 사람을 뜨끔하게 만든다. 그만큼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일본’ 혹은 ‘일본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나 다름없다. 이는 언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속, 인습, 역사관 등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같은 일본식 한자어라 하더라도 해당 어휘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기피 대상이 되고 비속한 어휘로 대접받지만 전통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버젓한 공용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오이꼬시(追越, 추월), 가이단(階段, 계단), 아이노루(合乘, 합승), 분빠이(分配, 분배), 가꾸보꾸/가꾸목(角木, 각목), 겐세이(牽制, 견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어의 음운 구조의 한계로 말미암아 간섭을 일으킨 영어 단어 들은 낙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앞의 것은 일본식 영어 외래어이고 뒤의 것은 한국식이라 하겠다. 잠바/점퍼, 샤쓰/셔츠, 보당/버튼, 세타/스웨터, 마후라/머플러, 뽀뽀/뽀뽀, 빠따/배트, 도라꾸/트럭, 빠다/버터 등으로, 일본어 간섭이 없을수록 규범에 가깝고 당연히 우월한 형태로 인정받는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원래 잘 쓰던 일본어도 일단 새로운 순화어가 생기면 낙인 효과가 생긴다. 손수레/리야까, 양동이/바께쓰 같은 말들이 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어에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변이형들의 층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말 중심의 규범어가 가장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다음 자리에 규범어에 가까워진 방언 사용자 출신들의 매끈하면서도 종종 방언 억양이 섞이는 변이가 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을 사용하지만 공적인 표현은 별 무리 없이 규범적 언어에 매우 가까운 변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방언 사용자, 연변 억양, 탈북민들의 변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뒤를 이주노동자들이 이으면서 현대 한국어는 언어 현실 속에서 과연 그 ‘현대성’을 제대로 획득했는지 의문스러워진다.

흥미로운 것은 한자어 가운데서도 ‘사자성어’만큼은 교양과 학식의 상징으로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사자성어를 잘 사용하면 단순히 지식인 정

도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교화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의 현대’ 아니 ‘한국어의 현대’에 아직도 전근대의 중국의 귀족적 언어문화는 깊이깊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영어에 라틴어 관용구가 살아 있듯이, 이슬람권에서 고정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 중요 성구를 주고받듯이 사자성어 역시 우리의 중요한 언어적 인 ‘뗏’일 수도 있다. 서운한 것은 그에 맞먹을 만한 반짝이는 명언이나 깊은 사색거리를 던져 주는 시구절 하나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 7. 현대어의 완성을 위하여

중세 말기에 서유럽 사람들은 사회 변혁을 진정 갈망했다. 자신들이 염원하던 모든 꿈을 ‘자유’, ‘평등’ 등의 구호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 제도의 창출과 정착에 힘을 쏟았다. 서로의 평등한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언어 규범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였고 사용자들의 성향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언어를 관리했다.

뒤늦게 현대화의 길을 걸은 한국어는 지나간 100년 동안 가깝스로 언어 규범을 완성하고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렀으나 사회를 통합하여 원활한 소통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배적인 언어 규범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 변이와 이산 집단과의 매개 기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애써 완성한 언어 규범의 가치가 적잖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또 이 글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피했으나 분단으로 말미암은 이중 규범의 문제 역시 같은 궤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 고려할 점이 있다. 특히 이른바 표준어를 제외한 다양한 언어 변이들을 지나치게 배척했고

폭넓은 언어적 사회 통합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분화 가능성이 있는 어휘도 값싸게 방언 혹은 비표준어로 밀려 나간 경우가 보인다. 아마도 훗날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통 큰 시각이 수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뚜렷한 언어적 맹점을 찾았다면 아직도 시민적인 호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시민 사회의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손쉽고 편안한 것이 인사와 호칭이어야 할 것이다. 자유스러운 인간관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맡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현실은 호칭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대변해 내려고 필요 이상의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엄청난 ‘맥락 의존적 호칭 체계’는 한국어 원어민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끊임없는 인간적 오해와 거부감을 상시적으로 극복하며 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성인이 되면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심지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호칭’을 사용하게 한다면 한국어의 현대화는 진정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언어 교양 문제이다. 한국어는 존대법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으나 언어에 반영되는 예절이 지나치게 전근대적이다. 차라리 존대법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언어 교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존대법에 경쟁적인 서비스업이 결합되면서 속칭 백화점식 존대법이라고 하는 ‘하실게요’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한국어의 실존적 모습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적인 언어의 모습을 다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인위적인 간섭과 정책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교육적 개입을 적절하게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적절히 한다면 지나치게 형식화된 이상과 실체로서의 언어 현실의 괴리를 인내해야 하는 지금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 국립국어원(2011),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_\_\_\_\_ (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김민수(1973, 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병문(2011), 《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 김하수(1991), “이른바 마침법 등분의 사회적 분화 과정에 관하여”, 제25회  
어학연구회 논문요지 및 자료, 116-117쪽,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_\_\_\_\_ (2010),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의 역할”,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재외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2010. 8. 11.) 특강 원고.  
\_\_\_\_\_ (2015),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3-24쪽.
- 윤건차(2015), 《자이니치의 정신사》, 이와나미; 한국어 번역, 박진우 외  
(2016), 한겨레출판.
- 이기문(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一潮閣.
- 조준학, 박남식, 장석진, 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어학연구, 17-2,  
167-197쪽.
- 한동완(2006),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